

건강은 기본적인 권리!  
이주노동자 건강권 권리선언과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촉구 기자회견.

기 자 회 견 순 서

사 회 ..... 손진우 한노보연 연구원

규탄발언 ..... 우다야 이주노조 비상대책위원장  
이수정 오산이주민센터 간사

유형발표 ..... 안기희 수원이주민센터 이주노동자팀장

기자회견문 낭독 ..... 김상현 민주노총경기본부 비상대책위원장

일 시 : 2013년 10월 23일 (금) 오전 11시  
장 소 :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앞  
주 최 :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 (The Rainbow)

## 1. 이주노동자 건강권 권리선언 경과보고

2013-03-14

경기이주공대위 주관으로 경기지역 이주노동자 건강권 권리선언 사업 진행을 위한 길찾기 워크숍 개최.

2013-04-11

경기이주공대위 한노보연소속 연구원인 손진우동지의 기획안을 토대로 구체적 사업 도모 완성.

2013-04-29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관련 목소리를 담기위한 엽서 완성

2013-05-31

경기남부지역 이주민관련 제단체 방문 건강권 권리선언 사업 간담회 개최(수원외국인 복지센터, 오산이주민센터, 안산 지구인의 정류장, 안산이주민센터, 군포아시아의 창)

2013-06-30

안산월드컵경기장에서 개최된 인도네시아 축제 방문 선전전 개최

2013-08-21

상반기 동안 간담회를 통해 배포된 건강권 권리선언 엽서 번역 작업 완료

2013-10-02

이주노동자 건강권 관련 권리선언 및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촉구 기자회견 확정.

## 2. 유형

- 총 600부중 127부 회수
- 77부 번역후 나머지는 고용노동부 전달 번역 및 실태조사 촉구
- 일과 관련한 어깨, 허리, 가슴, 다리통증 호소: 22건
- 공장내 화학, 약품취급 관련한 두통, 메스꺼움 호소: 14건
- 안전장비(안전화, 마스크, 헬멧등) 미지급으로 인한 불안함: 12건
- 기숙사 및 공장내 환경의 더러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10건
- 폭언으로 인한 스트레스: 9건
- 휴게실 공간, 쉬는 시간 미제공등 불평등 호소: 6건
- 퇴직금 미지급등 기타: 4건

### 3. 기자회견문

**건강은 기본적인 권리!**

**이주노동자 건강권을 보장하라!**

지난해 안산에서 23살 태국 노동자가 작업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꺼 놓은 프레스기의 안전센서 때문에 오작동 된 기계에 손이 잘려져 나간 사건이 일어났다. 한국에 온지 한 달 밖에 안 된 이주노동자는 한국에서 왼쪽 팔과, 꿈을 잃고 고국으로 돌아갔다. 작업시간 단축을 위한 안전조치 무시 때문에 한 노동자의 삶이 무너진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올해 4월 경남에서 이주노동자가 기계에 머리가 끼어 사망하는 사건이, 7월 평택 KTX 건설 현장에서 이주노동자 2명이 무너진 암벽에 덮여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건설현장에서는 집계하기 어려울 정도로 이주노동자들의 사망사건이 비일비재 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코리안 드림을 안고 한국에 왔지만 정작 이주노동자들은 산업현장에서 제대로 된 안전대책 없이 방치되고 있다.

경기이주공대위 무지개는 이런 이주노동자의 실태를 고발하고자 경기지역에 거주하는 이주노동자들의 건강권 권리선언을 올해 5월부터 진행하였다. 이 건강권 권리선언은 이주노동자 그들의 언어로, 그들의 목소리를 듣고자 함이었다. 어깨통증, 가슴 통증, 팔, 다리 통증, 작업장 안의 매캐한 냄새 및 숙식하는 기숙사의 열악한 위생환경까지 건강권 권리선언의 결과는 이주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작업장에서의 신체적인 고통도 문제이겠지만, 퇴근 후 쉬는 기숙사의 열악한 위생환경은 건강이라는 기본적인 권리마저 박탈당한 이주노동자의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낮은 환경, 언어의 문제는 이주노동자들이 아파도 제대로 호소할 수 없고, 문제가 있어도 제기 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주노동자에 대한 통번역 시스템 자체가 제대로 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수 많은 이주노동자들은 아파도 아픔을 호소할 수 없는 현실에 처해있는 것이다.

한국에서 내국인 노동자들이 기피하는 3D 업체에서 일하는 이주노동자들. 그들의 건강상태와 작업장 안전의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한국의 언어를 잘 모르기에 아픔을 제대로 호소할 수 없고,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병원을 찾기 힘든 실정이다. 또한 어마어마한 병원비로 인해 제대로 된 병원이 아닌 보건소에서 하는 응급 처치등에 만족해야 하는 실정이다. 또한 제대로 된 안전교육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작업장에서 어떠한 보호구가 필요한 것인지, 또는 작업장에서 사용하는 화학약품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한 채 무방비로 위협에 노출 되고 있다. 더욱이 문제는 이것을 개별사업자의 문제로만 돌린 채 고용노동부에서 책임 있는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는 이주노동자들의 노동권, 건강권, 안전교육 등 제대로 된 이주노동자 교육을 진행하지 않은 채 이주노동자들을 산업현장으로 그대로 투입 시키고 있다. 이러한

상황의 결과는 이주노동자의 산재사고와 그대로 직결되고 있고, 위험에 이주노동자들을 그대로 방치하는 처사인 것이다. 또한 건강권과 노동 환경등 실태조사 등도 진행하지 않고 있다. 어떠한 환경에서 일하는지, 어떠한 화학약품을 쓰는지, 최저임금은 받고 있는지, 장시간 노동에 방치되어 있지는 않은 지 등, 이주노동자의 실태조사는 뒷전인데 이주노동자들만 단속해서 쫓아내고, 또 새로운 노동자만 한국으로 유입시켜 똑같은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다.

이주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일회용품이 아니다. 이주노동자는 인간이다. 그리고 당연히 건강할 권리, 제대로 된 안전보건 교육을 받을 권리, 사람으로서 대접받을 권리가 있다. 이주노동자는 한국 정부의 필요와 요구에 의해 한국으로 유입되어, 한국 경제를 위해 일하고 있다. 이들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된다. 더 이상 기계에 손과 다리가 잘려, 건설현장에서 떨어져, 화학약품에 중독되게 해서는 안된다. 우리는 이미 수 많은 이주노동자들을 삶이 무너지는 것을 보아왔다. 우리가 조사한 건강권 선언에서 이미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이주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좀 더 광범위한, 폭넓은 조사를 통해 이주노동자의 건강권과 한국에서의 안정된 삶을 보장해야 한다! 한국 정부와 고용노동부는 최소한의 권리를 짓밟지 마라! 이주노동자의 건강권, 노동조건 실태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 우리의 요구

- 1) 이주노동자 노동권, 건강권 실태조사를 즉각 시행하라!
- 2) 경기남부권 이주노동자 채용 사업장 근로감독 실시하라!
- 3) 이주노동자 노동권 관련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지역 사회와 소통하라.!
- 4) 이주노동자를 채용하는 사업주 안전보건 교육 및 인권교육 실시하라.!
- 5) MOU국가 이주노동자들을 위한 통/번역 시스템을 마련하라!

2013년 10월 23일 이주노동자 건강권 권리선언과 고용노동부 실태조사  
촉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